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0호 [루게 제 24338호] 주제 102(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감사문 옥류아동병원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명령지시를 높이 받들고 옥류아동병원을 세계최상급의 아동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당창건 68돐을 맞으며 성과적으로 완공된 옥류아동병원은 최신식의료설비들과 치료시설들,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수 있는 교실과 실내놀이장, 야외휴식터와 직승기착륙장까지 그흔히 갖추어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동심에 맞게 꾸려진 세상에 들도 없는 아동의료봉사기지가이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세계최상급의 아동병원이 일떠서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리상과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나가는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동병원을 건설할것을 결심하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에 맡겨 주었다.

아동병원건설은 단순히 의료봉사기지를 일떠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건축물을 하나 건설하여도 질과 속도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며 건설의 최전성기, 최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었다.

군부대의 장병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아동병원을 선물로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념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적진을 벌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운 아동병원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식물들에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건축물들을 대상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며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한 당의 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치료 및 처치실들과 수술실, 입원실들을 비롯한 아동병원의 시설물들을 환자치료와 어린이들의 생활에 최대한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군부대의 당조직들과 지휘관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립체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방대한 아동병원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선원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할 때 놓지 못할 난관, 절명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주었다.

옥류아동병원은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인민의 재부이며 최첨단을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주체적인 건축예술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옥류아동병원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문수지구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욱 일신되게 되었다.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옥류아동병원 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만방에 떨치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힘써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

대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었다.

옥류아동병원건설을 통하여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운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건설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들과 진을 벌려 세계적수준을 봉사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실천으로 구현한 시대의 선구자들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와 같이 당의 사상과 정책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충실한 당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며 이런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과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들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옥류아동병원을 세계최상급으로 일떠세운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장병들의 빛나는 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옥류아동병원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

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 척후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군부대에서는 대오안에 혁명적령군체제와 공군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최고사령관이 일관 명령을 내리며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관철하는 전투력이 강한 만능부대의 위용을 높여 펼쳐나가기이다.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옥류아동병원 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부대가 맡은 모든 건설대상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며 당중앙시대 건설의 최번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이다.

군부대장병들은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만일 적들이 덤벼든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공적의 혁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도록 싸움준비를 더욱 완벽해나가기이다.

전체 인민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창조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최첨단들과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연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며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우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예방과 과학연구사업을 신속있게 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당과 국가의 보건의책이 더 깊게 미치도록 하며 당의 은정이 깃들여있는 병원의 모든 시설물들과 설비들을 귀중히 다루고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내무군 제3154군부대 장병들을 비롯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라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2(2013)년 10월 16일

사설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E. C》결성 87돐을 맞이하고 있다.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대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E. C》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되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부리인 《E. C》의 리념이고 원칙이며 리상이다. 민족의 높은 존엄과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밝은 전도는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승리하며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의 당기를 높이 들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련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입니다.»

《E. C》가 역사의 뜻을 올린 때로부터 어떤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 혁명이 걸여온 지난 80여 년의 성상은 《E. C》가 높이 키우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들이 전진하며 승리벌쳐온 긍지높은 역사이다.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며

인류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울데 대한 《E. C》의 투쟁강령은 조선혁명가들의 넓이었고 승리의 표대였다. 《E. C》가 키우른 자주성의 원칙이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드림없는 혁명적원칙이었으며 《E. C》로부터 시작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혁명의 피조기였다. 《E. C》가 내세운 웅대한 리상과 목표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일떠설수 있었다. 《E. C》의 전통이 있어 명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와 인민이 단결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고 우리 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이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갈수 있었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로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E. C》결성의 역사적의의와 생명력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에도 우리 혁명은 《E. C》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E. C》의 승고한 념과 역전 기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처럼 그 개척과 계승, 승리적전진의 전로로서 하나의 명맥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 의 리념과 투쟁목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혁명은 없다.

이 세상 끝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대한 최대의 충정이며 혁명적도덕의 위대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리념과 투쟁목표를 창조하신 회세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시다. 일찌기 80여년전에 빛나는 선경지명으로 주체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고수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주시었기에 지난 20세기가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세기로 빛날수 있었고 오늘의 21세기에도 우리 혁명이 항상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에 우리 조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사회주의의 보루로 위용떨치게 되었으며 민족대단의 무궁무성하게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오늘 날 우리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에 받들어모시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여나간다는것은 곧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간다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총정신과 의리의 도덕리념, 순결한 양심과 의리의 간직한 인민에게는 수령이 가리켜준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애국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그 길에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E. C》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선군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시대의 주체의 항거를 따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불어넣어가는 격동적인 투쟁의 시대에 이 반만년민족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

한 강성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비약의 시대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역사의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작업력과 제재의 도수를 높이며 반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가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는 앞길에 험난하다고 하여 자기 선명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 인민이 아니다. 미제의 온갖 강권과 전횡, 압력과 봉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기의 위업에 대한 필수의 신념과 락관, 계승혁명의지를 원수님에게 윤명도 미레도 다 달고있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E. C》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을 백전백승의 성으로 이끌어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주실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기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선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적인 신봉자, 전결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은 반

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조선인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리가 가는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희망찬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락관을 안겨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총직하게 받드는 길에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하여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제 군대와 인민이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적인 신봉자, 전결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은 반

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조선인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리가 가는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희망찬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락관을 안겨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총직하게 받드는 길에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하여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제 군대와 인민이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적인 신봉자, 전결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은 반

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조선인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리가 가는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희망찬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념과 락관을 안겨차넘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E. C》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총직하게 받드는 길에 《E. C》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하여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제 군대와 인민이 《E. C》의 열혈투사들처럼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E. C》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군님 우리 혁명사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기적,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광은 전결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가장 철저한 자주사상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적인 신봉자, 전결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은 반

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조선인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우리가 가는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 결사의 의지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짝 차넘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기이다.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후대사랑속에 솟아난 최상급의 옥류아동병원

전설 같은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기념비

어머니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감사의 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뜻깊은 10월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그 이름도 유정한 옥류아동병원,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양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사랑이 뜨겁게 어러있는 아동병원을 돌아보노라면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미례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안아왔는가를 가슴부듯이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그 이름 불려볼수록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적 자애가 눈앞에 어러오고 거슴츠름하시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오는지 모르겠다.

아동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인민의 병원,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꾸려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직접 건설을 맡기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아동병원의 설계도안과 매 방에 놓을 비품들, 유휴기구, 후에 놓을 의자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최첨속도장조자들인 조선인민대무군 정창복소

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을 직접 파견 해주시였다.

지난 7월 어느날은 이곳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곳은날 어슬픈 건설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된 부대지휘관들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었다.

쏟아지는 비를 줄곧 맞으면서 옷설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앞장서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대지휘관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입원실의 크기와 층높이도 가늠해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건물의 크기와 층높이를 보시고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편의부터 생각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에 와셔였다.

영광의 그날 병원의 운영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만나 시기에 앞서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 듯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가울것이 없다고, 입원실마다에 텔레비전수상기와 팽풍기들을 놓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소식은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에 충정의 불을 달아주었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한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증축공사를 단 한주일동안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수놓아갔다.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리페체를 벌려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기본병동팔조공사를 끝내었으며 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해나갔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방대한 공사를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었다.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과 기호에 맞는 훌륭한 병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각종 놀이감 및 유휴기구에도,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로 부각장식된 병원내부의 곳곳에도 속속들이 어러였다.

지난 10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중앙홀에 이르시어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면서 이것이 진짜그림이라고, 재간들이 많이 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3층에 꾸러진 대수출장을 돌아보시며 수정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3층복도에 붙인 그림을 보시고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모든 미술창작가들이 동원되어 그림을 그려내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아동병원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꼭 맞게 꾸러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는 끝이 없었다.

그날 밤 평양미술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크나큰 믿음을 받

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가 되어 평양시안의 미술창작가들과 함께 아동병원에 그림장식을 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오랜 화가들보다 생신하고 기발한 작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필요한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 내려보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이

렇게 되어 평양미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시안의 창작가들이 아동병원으로 달려오는 력사에 잊어보지 못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날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병원의 이름

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 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새차게 높뛰었다. 세상에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었는가.

일군들의 눈에서는 뜨거울것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모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이런 친어머니사랑

에 옥류아동병원이 일떠섰다.

세상에는 옥류아동병원처럼 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쓰이는 설비들, 교육조건,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들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아동의료봉사기지는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은 어머니 우리당의 후대사랑, 미례사랑이 낳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랑의 기념비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크나큰 믿음, 뜨거운 은성의 결정체

사랑의 명령

아동병원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느 단위가 건설을 맡아하게 되는가는 모두의 관심사로 되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례사랑의 결정체인 아동병원 건설을 맡아하고싶어하는 건설단위들은 얼마나 많았는가.

바로 이러한 때 아동병원을

맡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조선인민대무군 정창복소속부대에 내려졌다. 최첨속도장조자들이 아동병원건설을 통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첨속도장조자들 비롯하여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전투력있는 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과시한 정

창복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려는 신념과 의지로 새차게 맥박쳤다.

최첨속도장조자들에게 내려진 명령, 이 명령이야말로 당이 부르는 곳서는 언제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이 부대에 대한 최상급대의 믿음이었다고 후대들을 위해 내리신 사랑의 명령이었다.

명령받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최첨속도장조자들답게 건설의 날과 달들을 수명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수놓아가며 옥류아동병원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만큼 짜조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설계의 탄복

다른 재능으로 옥류아동병원건설에 적극 기여한 한 설계자의 전설한 고백이 있다.

지난 10월 초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건설장을 다녀가신 후였다.

현지도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그의 심장은 날다름 격정

으로 울리고있었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설계와 시공, 건재는 3대요소라고 하시면서 당의 지도밑에 훌륭한 아동병원설계가 나오고 전투력있는 부대가 시공을 맡아하였으면 좋

은 건재로 마감하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건축물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그러도 만족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위인의 예지와 실력은 사람들을 자서처럼 끌어당기는 법이다.

1700여점의 미술작품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노라면 미술박물관에 온듯 한 착각이 든다. 우리 나라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미술작품들이 병원내부의 벽면들을 꼭 채우고있는 것이다.

이 미술작품들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다.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한진한진 다 보아주시고 미술가력량까지 친히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머니 사랑에 떠받쳐 병원내부의 벽

면들은 짧은 기간에 1700여점의 그림들로 훌륭히 장식되게 되었다. 그 하나하나의 미술작품들을 눈여겨보노라면 정말이지 병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박물관에 온것만 같았다. 매 작품들마다에는 병원을 리용할 어린이들의 동심세계에

맞게 병원을 최상급으로 꾸러주시며 마음써오신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렇다.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숭고한 후대사랑, 미례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또 하나의 화폭인 것이다.

본사기자 오철권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현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 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설비는 최신식으로,

환경은 동심에 맞게

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옥류아동병원은 환경은 동심에 맞게, 설비는 최신식으로 갖춰져있다.

병원밖을 보자.

지능놀이장으로 탐을 쌓아놓은듯 한 6층짜리 병원건물은 동심에 맞는 건축미를 느끼게 하고 평양산천과 마주한 병원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품에 안긴

아이와도 같이 따뜻한 정과 아늑한감을 지어낸다.

건물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주 단처럼 펼쳐져있고 동심에 맞는

각이한 주제의 조각상들과 분수

도 있다.

병원의 내부는 또 어떠한가. 자동차문을 통과하여 현관에 들어서면 저도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실내의 조명등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거울처럼 알른거리며 병원의 여러곳에 꾸러진 실내놀이장들과 휴식장에는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이설비와 기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으며 다양한 색깔로 장식된 폭신한 의자들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며져있다.

옥류아동병원은 치료설비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병원이다.

6층짜리 전가되어있는 모든 치료실, 검사실, 입원실들마다에는 침단의료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져있고 수술실들은 무균화,

무진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가 매 파벌로 세분화되어있으며 한번 일원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검사를 요구하는대로 받게 된다.

벌리 지방에서 환자들을 후송해올수 있게 마련된 직승기착륙장이며 식당, 야외놀이장 등 요소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모든것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지금 옥류아동병원의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례사랑을 심장강이 새겨안고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병력서와 출석부

다른 선생님들을 만났다.

자기 일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수교양준비를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니 생각은 절로 깊어졌다.

문득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어린이들의 실제와 관련하여 《로동신문》에 실렸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이 병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고있다.

최근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년 6백만 명이 사망하고 1억 2천만 명이 장애를 겪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 어린이들의 처지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야말로 하늘땅과도 같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있다.

《만민복지》를 떠드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약값, 수술비가 없어 목숨을 잃고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돈 한판 내지 않고 예방치료를 해를 막아주고 있다.

다른 나라 녀성들이 어린이들의 출생에 뒤따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근심, 절망에 싸여있을 때 우리 녀성들은 이 땅의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을 다 합쳐 자

식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손길에 목이 매인다.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이지만 능문의 자식인 이 땅의 아이들은 최신식의료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진 이 아동병원에서 무상치료의 혜택을 더욱 뜨겁게 받게 되었다.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첨단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아동병원을 일떠세워주어 고맙기 이를데 없는 데 입원치료기간에도 수업을 계속할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노래, 충정의 노래를 심장으로부터 또 부른다.

병력서와 출석부, 정령 무심히 부를수 없는 말이다.

바로 이 맑속에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은혜로,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참모습이 뜨겁게 비껴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하나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실내의 조명등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거울처럼 알른거리며 병원의 여러곳에 꾸러진 실내놀이장들과 휴식장에는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이설비와 기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으며 다양한 색깔로 장식된 폭신한 의자들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며져있다.

옥류아동병원은 치료설비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병원이다.

6층짜리 전가되어있는 모든 치료실, 검사실, 입원실들마다에는 침단의료설비들이 그르히



실화

13살 병사의 고향

《자나 깨나 뵈고싶은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1950년 8월 13살때 전라북도 호남땅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던 강원일보사 기자 전정로병 정준모입니다.》

목소리가 품속에서처럼 매아려쳐왔다. 《꼬마야, 끝까지 가거라!》 소년은 저도 모르게 가슴에 품은 자그마한 붉은천주메미를 꼭 감싸안았다. (삼촌의 원수도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것은 비겁한 일이다. 절대로 돌아서면 안돼!)

한번도 소년의 작은 배를 불러주진 않았고 그 이듬다음아에서 조들리는 가난은 철부지 소년의 가슴에 실음만 덧놓아주었다. 절없던 그때 하루중에 소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는것은 비겁한 일이다. 절대로 돌아서면 안돼!

《김일성장군 만세!》 소년에게는 당원들과 민청원들이 판가리 결정을 앞두고 바위와 나무들에, 맹세문에 새기던 《당과 수명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새롭게, 크게 느껴졌다. (나도 취사원아바이처럼 1211고지를 지키리라! 김일성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리라!)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아마도 전쟁의 불길속에서 편락병인 그보다 더 많이 탄피발을 달린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는 불사조처럼 살아있었다. 총알이 그를 피한것이 아니었다. 총대, 대가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품은 그를 지켜주었다. 편락병의 심장에 간직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대대는 굳기처럼 귀중히 간직하고 결전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치었다.

《정씨가문에 대학을 나오고 기자가 된 오빠 하나뿐이예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치마저고리 감이며 보약을 가슴에 안고 젊은 눈물만 줄줄이 흘러던 80고령의 어머니가 63살의 아이를 꼭 껴안았다. 《에미라고 자식 넷을 끼고있으면서도 어느 하나대학문턱에 세워보지 못했는데...》 정준모는 한평생 고생이 없었던 정씨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부모형제도 몰래 출격 고향을 떠나던 63년전의 그날이 어찌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남녘땅 곳곳에서 의용군단원 열풍이 절정에 올랐던 때였다. 《오 버티기냐? 인민군대에서는 너같은 애승인 받지 않아. 장총키보다 큰 다음엔 꼭 받아주지.》 벌써 다섯번째로 찾아와 성화를 먹이는 덕벽리소년에게 대렬군편은 딱 잘라 말하였다.

《저후를 뚝고 혼자서? 구대린 못지 않아.》 대탄해!》 이듬해 봄 용감한 소년병사는 대안산전투에서 세운 위훈으로 첫 공공메달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메달 못지 않게 큰 충격을 준것은 편대장이 인준신 신발이었다. 《편발바람으로 눈판을 말리다니... 병사에게 발이 날개야. 아직 각질이 면데 신발이 없어야 어떻게 먼길을 가겠니.》

《나도, 내 자식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야 흰쌀밥을 먹어보았었다.》 그것은 정준모가 정다운 취사원아바이에게서 들은 마지막말이었다. 1211고지아래 쌍두루뎡에서 밥을 해가지고 전우들을 찾아 달려오던 그를 적의 특공포탄과편이 쓰러뜨렸던것이다. 그가 돌아온 전 밤배낭에서는 아직도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상등병 정준모동무!》 순간 수많은 눈동자들이 정준모의 가슴으로 쏘였다. 그의 가슴속에 무엇이 간직되어있는지 대대의 누누기가 알고있었다. 은 대대가 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있는지 정준모는 잘 알고있었다. 온몸에 파도치는 격정으로 하여 정준모는 심장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당원들과 함께 간직했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향해 펼쳐들었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정준모로병은 인생말년에 또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안은듯 한 흥분과 열정을 베풀어 주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빛내주고 있는지를 그는 그 시각 심정으로 절감하고있었다.》

《이래도 안되겠어요?》 남녘의 철부지 소년의 품속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가 나올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대렬군관들모두가 놀랐다. 《우리 삼촌은 감옥에서 원수들을 넘겨 주면서 단부했어. (장군님을 찾아가야 하는 당.)》 인민군대에 가면 김일성장군님을 만날수 있대요. 난 기어이 삼촌의 원수를 갖고 장군님을 만나볼테예요!》

《하지만 그에게 메달 못지 않게 큰 충격을 준것은 편대장이 인준신 신발이었다.》 《편발바람으로 눈판을 말리다니... 병사에게 발이 날개야. 아직 각질이 면데 신발이 없어야 어떻게 먼길을 가겠니.》

《나도, 내 자식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야 흰쌀밥을 먹어보았었다.》 그것은 정준모가 정다운 취사원아바이에게서 들은 마지막말이었다. 1211고지아래 쌍두루뎡에서 밥을 해가지고 전우들을 찾아 달려오던 그를 적의 특공포탄과편이 쓰러뜨렸던것이다. 그가 돌아온 전 밤배낭에서는 아직도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정준모로병은 인생말년에 또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안은듯 한 흥분과 열정을 베풀어 주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빛내주고 있는지를 그는 그 시각 심정으로 절감하고있었다.》

《우리 삼촌은 감옥에서 원수들을 넘겨 주면서 단부했어. (장군님을 찾아가야 하는 당.)》 인민군대에 가면 김일성장군님을 만날수 있대요. 난 기어이 삼촌의 원수를 갖고 장군님을 만나볼테예요!》 《우리의 삼촌은 감옥에서 원수들을 넘겨 주면서 단부했어. (장군님을 찾아가야 하는 당.)》

《하지만 그에게 메달 못지 않게 큰 충격을 준것은 편대장이 인준신 신발이었다.》 《편발바람으로 눈판을 말리다니... 병사에게 발이 날개야. 아직 각질이 면데 신발이 없어야 어떻게 먼길을 가겠니.》

《나도, 내 자식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야 흰쌀밥을 먹어보았었다.》 그것은 정준모가 정다운 취사원아바이에게서 들은 마지막말이었다. 1211고지아래 쌍두루뎡에서 밥을 해가지고 전우들을 찾아 달려오던 그를 적의 특공포탄과편이 쓰러뜨렸던것이다. 그가 돌아온 전 밤배낭에서는 아직도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정준모로병은 인생말년에 또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안은듯 한 흥분과 열정을 베풀어 주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빛내주고 있는지를 그는 그 시각 심정으로 절감하고있었다.》

《우리 삼촌은 감옥에서 원수들을 넘겨 주면서 단부했어. (장군님을 찾아가야 하는 당.)》 인민군대에 가면 김일성장군님을 만날수 있대요. 난 기어이 삼촌의 원수를 갖고 장군님을 만나볼테예요!》 《우리의 삼촌은 감옥에서 원수들을 넘겨 주면서 단부했어. (장군님을 찾아가야 하는 당.)》

《하지만 그에게 메달 못지 않게 큰 충격을 준것은 편대장이 인준신 신발이었다.》 《편발바람으로 눈판을 말리다니... 병사에게 발이 날개야. 아직 각질이 면데 신발이 없어야 어떻게 먼길을 가겠니.》

《나도, 내 자식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야 흰쌀밥을 먹어보았었다.》 그것은 정준모가 정다운 취사원아바이에게서 들은 마지막말이었다. 1211고지아래 쌍두루뎡에서 밥을 해가지고 전우들을 찾아 달려오던 그를 적의 특공포탄과편이 쓰러뜨렸던것이다. 그가 돌아온 전 밤배낭에서는 아직도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손모야, 아직도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느냐? 김일성장군님을 뵈었다면 내 소년은 풀었냐?》 2000년 8월 올린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으로 서울에 간 정준모에게 첫 물음을 던진것은 뜻밖에도 삼촌어머니였다. 그 초상화를 하여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떠났던 조카의 심정을 누누보다 잘 알고있는 삼촌어머니였던것이다.

《정준모로병은 인생말년에 또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안은듯 한 흥분과 열정을 베풀어 주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빛내주고 있는지를 그는 그 시각 심정으로 절감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몽골방문 25돐과 조봉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몽골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몽골방문 25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몽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마니바드라린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16일 연회를 개최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리룡남 무역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정진성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황호남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마니바드라린 간볼드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5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파전시회 개막

제5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파전시회 개막식이 1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현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는 나라의 인재육성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 구상을 받들어 최첨단들과 위대한 학습과 과학탐구를 벌여나가는 청년대학생들의 면모를 과시하는 의미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학생청년들이 김일성애국주의를 지니고 조국의 통일전쟁에 참가하여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 더 높은 목표를 정렬하기 위해 분발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국에 갔던 조중친선협회대표단 귀국 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중 친선협회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가자가 마중하였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 애국렬사릉에 려사들의 유해 새로 안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선군혁명모험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려사들의 유해가 애국렬사릉에 새로 안치되었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 16일 남자축구 4. 25팀과 포항산림, 경공업선림과 평양팀, 여자축구 만경봉팀과 압록강팀, 리명수팀과 황룡산림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4. 25팀은 포항산림과의 경기에서 중간지대에서의 공배와 2. 3인력, 빠른 기동에 의한 문전돌입을 재치있게 조직하여 포항산림을 5: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이겼다. 경공업 선림과 평양팀이 2:1로 리명수팀을 이겼다. 15일에 있던 남자축구경기에서는 포항산림이 기만차팀을 4:3으로 이겼으며 리명수팀과 만경봉팀은 1:1로 비겼다. 여자축구경기에서는 4. 25팀, 포항산림이 철도팀, 소백수팀을 각각 3:0, 2:1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장에 명예의학박사학위 수여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장 찰리 폴리안방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우리 나라의 민중적 리로 로봉수체제 수립과 건강형편과, 북강성, 줄기세포 등 리상 및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찰리 폴리안방 소장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편관위 일군들, 시인의 소학교 학생들, 교원들, 유치원 어린이들, 교양원들과 주조 유엔 아동기금 대표, 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세계손씻기의 날이 가지는 의의와 손을 깨끗이 씻는것이 사회를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설사증과 폐염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고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그는 몽골과 조선은 65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해 온 몽골은 공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할것을 희망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호상 다방면적인 경제협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